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11

가족금융·상속·후견·디지털 유산

가족의 돈과 권한을 투명하게 정하고 사망·질병·판단능력 저하 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한다.

큰글자 학습본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

큰글자 핵심학습본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왜 배우나요?

가족의 돈은 믿음만으로 관리하지 않고 권한과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가족의 금융생활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보증·세금·디지털 계정도 함께 포함됩니다.
- 상속은 재산만 받는 일이 아니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판단합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임의로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능력 저하나 사망에 대비해 위임·후견·유언·디지털 기록의 위치와 권한을 미리 정합니다.

PART 0 · EDU-11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뜻을 읽고 생활 예를 떠올린다.

개인재산과 공동재산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구분한 재산입니다.

- 생활 예: 공동생활비 계좌와 개인저축 계좌의 사용규칙을 따로 정합니다.
- 확인: 배우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와 법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본인을 대신해 정해진 범위의 일을 할 권한입니다.

- 생활 예: 위임장에서 금융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확인: 대리권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와 본인을 위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후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 예: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에 따라 재산관리를 지원합니다.
- 확인: 인지가 떨어지면 가족이 자동으로 모든 권한을 갖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후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어지는 일입니다.

- 생활 예: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 등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내역과 선택기한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유산

사망 뒤 남는 계정·구독·전자기록·디지털 자산과 처리 권한입니다.

- 생활 예: 계정 목록과 문의처를 남기되 비밀번호는 별도 보안수단으로 관리합니다.
- 확인: 계정 목록을 남기려면 비밀번호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목록과 접근절차를 남기고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기초학습 1 · 가족재산은 재산과 채무의 묶음

명의만 보면 가족의 금융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의 금융상태에는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소송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명의와 실제 부담자가 다를 수 있어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알고 있다는 기억보다 계좌·계약·등기·채무와 담당기관을 목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채무·보증을 따로 목록화합니다.
- 명의자·계약자·수익자와 관리권한을 확인합니다.
- 원본 문서 위치와 정기 점검자를 정합니다.
- 생활 예: 부모 명의 집만 확인하고 부모가 보증한 사업채무를 놓치면 상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흔한 오해: 가족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니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확인: 통장 잔액만 알면 가족재산 목록이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채무·보증·세금·보험·부동산과 디지털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2 · 상속의 세 가지 기본 선택

상속재산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원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 재산·채무·보증·세금을 조회합니다.
- 선택의 효과와 법원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생활 예: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로 먼저 사용하면 상속 승인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존과 상담이 우선입니다.
- 흔한 오해: 빛이 많아 보이면 가족끼리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상속포기는 가족 합의서만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기간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3 · 위임·대리·후견

가족이면 대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위임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일을 맡기는 것이고, 대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행동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금융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등 법적 제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도움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위임장·후견 결정 등 권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사용내역과 의사결정을 기록하고 정기 점검합니다.
- 생활 예: 부모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부모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보다 적절한 위임과 금융회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 흔한 오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이면 기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가족갈등과 오용 위험을 키웁니다.

확인: 부모가 고령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적절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4 · 디지털 유산과 사후 기록

온라인 계정도 상속 준비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유산에는 온라인 금융계정, 가상자산, 유료서비스, 사진·문서와 접근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와 개인정보, 계약 종료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보다 계정 목록, 보관 위치, 연락기관, 본인의 처리 의사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중요 계정과 유료계약 목록을 만듭니다.
- 자산·개인기록·폐기대상을 구분합니다.
- 접근 권한과 사후 처리 방법을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생활 예: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거래소 이름과 계정 존재, 지갑 보관 방식은 남기되 비밀키 노출 위험을 따로 관리합니다.
- 흔한 오해: 가족에게 모든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정보유출 위험이 큼니다.

확인: 디지털 계정은 실물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자산·요금·개인정보와 접근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PART 1 · EDU-11

학습 목표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공동생활비와 개인재산의 경계·동의 규칙을 만든다.
- 보증·증여·상속이 서로 다른 법률·세금 문제임을 구분한다.
- 대리·후견·의사결정 지원에서 권한과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계좌·보험·채무·구독·디지털자산 목록과 접근 원칙을 준비한다.

PART 2 · EDU-11

핵심 구조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책임과 피해가 불분명해진다.
- 상속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과 같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
-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급히 만든 위임은 분쟁 위험이 크다. 건강할 때 범위와 감시 방법을 정한다.
- 디지털 유산 목록은 만들되 비밀번호 자체를 평문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PART 3 · EDU-11

비교 질문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 보증·증여·명의 이전은 서명 전 독립된 상담을 받는다.
- 사망 시 금융거래·채무·보험·세금 조회 절차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 대리·후견 권한은 대상 업무·기간·보고 방법을 문서화한다.
- 디지털 계정은 목록·복구수단·처리 희망·보관 위치를 분리한다.

PART 4 · EDU-11

행동 순서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평상시: 분기마다 30분 가족금융회의를 한다.
- 건강 변화: 대리·후견·의료·재산관리 의사를 기록하고 전문상담을 받는다.
- 사망 직후: 임의 처분을 멈추고 재산·채무·보험·세금·계정을 조회한다.
- 정리 후: 증빙·결정·분배·해지 기록을 보관하고 남은 위험을 재점검한다.

PART 5 · EDU-11

확인할 권리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동의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후견·상속 절차를 법원·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할 권리
- 명의도용·무단거래를 신고할 권리
- 디지털 계정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약관을 확인할 권리

PART 6 · EDU-11

다섯 사례의 안전한 다음 행동

상황이 비슷해도 계약과 조건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다.

배우자의 숨은 빚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고서야 채무를 알았다.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부모의 보증 부탁

서류는 형식이라며 자녀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사망 뒤 채무

예금만 찾다가 뒤늦게 빚을 발견했다.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반복 송금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모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송금한다.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남은 계정과 구독

사망자 명의 구독과 디지털 계정이 계속 결제된다.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PART 7 · EDU-11

공식 근거로 확인한 사실

확정 사실과 조건 확인 문장을 구분한다.

확정 사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할 조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 요건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정 사실 ·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확인할 조건: 명의·보증·세금·소송 등 숨은 의무를 함께 조회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

안전 원칙 · 선택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확인할 조건: 재산을 보존하고 법원·법률구조기관에 신속히 확인한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PART 8 · EDU-11

생활 변화와 새 위험

하지 않을 것·확인할 것·지금 할 일을 한 문장씩 읽는다.

보증·연대보증·가족 간 돈거래도 계약입니다

가족 부탁이라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큰 책임을 질 수 있고, 돈 거래는 상속·세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 않을 것: 도장을 잠깐 빌려주거나 이름만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채권자·채무자·보증 범위·기간·최대 책임·해지 가능성·담보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지금 할 일: 서명 전에 독립된 법률상담을 받고, 가족 간 거래도 금액·상환일·이자·증빙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https://www.klac.or.kr/>

PART 9 · EDU-11

오늘 할 일

실행 날짜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한다.

- ☐ 평상시: 분기마다 30분 가족금융회의를 한다.
- ☐ 건강 변화: 대리·후견·의료·재산관리 의사를 기록하고 전문상담을 받는다.

- 사망 직후: 임의 처분을 멈추고 재산·채무·보험·세금·계정을 조회한다.
- 정리 후: 증빙·결정·분배·해지 기록을 보관하고 남은 위험을 재점검한다.